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지옥도 불국토도 마음에 달려있다

자력과 타력이 결국 하나인지

문 어떤 사람의 글을 보았는데, 기독교를 타력종교라 하고 불교를 자력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별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기독교 사상이고, 불교는 결국 하나하나 깨쳐 나가서 자아완성에 이르는 단계가 부처 경지다, 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은 같은데 방법상에 있어서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는 아래에서부터 하는 차이만 나타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답 자아완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알고, 자기 자신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일임하여 놓는 과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의 컴퓨터 시스템에 과거에서부터 살아온 게 다 입력이 돼 있어서 하나하나 현실로 나오는 걸 다시금 나온 자리에 입력시키는 공부이고 과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좋은 결과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심성생활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는 하는 소리가, 같이 오고 싶는데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형상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었다. 단 하나,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너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졌고, 너로 인해서 믿음도 생각을 하게 됐고, 너로 인해서 친구도 생기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느냐? 내가 상대가 있고 학교에 공부를 하러 다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로부터 모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처는 바로 너한테 있는 것이다. 즉 그 주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너인 것이다. 역시 부처님도 너인 것이다. 이 도리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불응하고 또는 배척하고 이러는 거다. 지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생의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지구를 벗어나서 사느냐, 지구 안에서 전체가 사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나 지구 안에서 전체가 살고 있는데 한 발짝을 어디로 뛰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종교 내 종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뜬구름이 한 무더기 모였다가 그것이 헤어지면 또 다른 구름하고 모이듯이 한 생 살면서 몸을 벗으면 벗는 대로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아픈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너희들 모두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독교뿐만 아니고, 어떤 교를 막론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마음의 물리가 타진다면, 증득한다면 바로 부(父)와 자(子)가 만나고, 만남이 있다면 너의 씨가 바로 너에게 들어 있는 줄 알고, 돌이 아닌 도리를 알고 돌이 아닌 나뭇잎을 할 때,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를 한꺼번에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때,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라고도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참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면서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키워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해야 변함 없이 사

랑을 할 수도 있고 변함 없이 돌이 아닌 도리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만 찾는다면 그것은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20년, 30년 가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 단 말입니다. 증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 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밖으로 찾지 말고 마음 안으로 믿고 찾아야 만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세상도 불국토입니까

문 스님께서 늘 만물만생이 법 아님이 없고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처이고, 불국토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의의가 납니다. 혼란한 지금도 불국토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인과 필연의 원칙에 의해서 진리 중의 진리인 불법이 미래에 불국토를 이룬다는 말씀인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일테죠.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로 불국토나 지옥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국토도 한마음에 있는 것이고, 지옥도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이끌어서 서로가 상응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국토가 아니겠습니까? 이 불국토가 오직 여러분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되고 못되는 일의 차이

문 이 법을 알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어떤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많이 붙이는 듯 합니다. 뭐가 잘되면 마음공부를 잘해서고 뭐가 잘못되면 마음공부를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것이 아니에요. 잘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답답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안되는 것도 그

나로부터 만물이 벌어졌기에 주처는 각자 자기한테 있어

문 여러분이 알면 그대로 여여하게 불국토인 것이고, 여러분이 모르면 불국토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우쳐서 돌이 아닌 도리를 감지하고 이 세상이 공생(共生)으로, 공용(公用)으로 공식화(供食化)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대로 불국토인 것입니다.

불국토가 아니다. 불국토다 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전력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 급속도 다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끌어다 쓰이는 데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력은 다 똑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본은 다 똑 같은데 모습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고 사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불국토고, 그대로 아주 자유스런 세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우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콧방귀 탁 뀌고 심기가 웃고 돌아가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로 하늘이 무너진다 한다면,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우리 식구가 죽으면 어쩌나, 그냥 발발 땀과 땀까지 없습니까? 그러나 콧방귀를 뀌고 웃으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라면 불국토일 것이고 또, 죽을까봐 벌벌 기고, 살지 못할까봐 채일까봐서 그냥 벌벌 걷다면 그거는 불국토가 아니라 지옥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리고 거기도 놓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그렇게 하면 잘 나찰나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할 때도 보세요, 차를 타고 갈 때에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릴 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내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돌이 아닌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언제 찾아옵니까

문 견성 또는 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찾는 것과 같은지요? 그리고 육조단계에는 견성을 단박 깨친, 그러니까 돈오돈수라 하셨는데 주인공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 인지요?

답 주인공이 자체가, 즉 말하자면 전부 공생(共生)으로서 공용(公用)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자, 모두가 천 가지만 가지 마음으로 나와 돌아가니까 공(空)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생멸에 대해서도 죽고 사는 게 없단 얘깁니다. 영원한 겁니다. 지금 주인공 찾는 것이 바로 수역경 광년 전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적인 주인, 자기를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은 그냥 그대로죠.

그러면 돈오돈수냐? 돈수가 다르고 점수가 다르냐? 그게 아닙니다. 학과 도와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 교는 돌이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탐을 쌓으려면 하나 하나 돌을 갖다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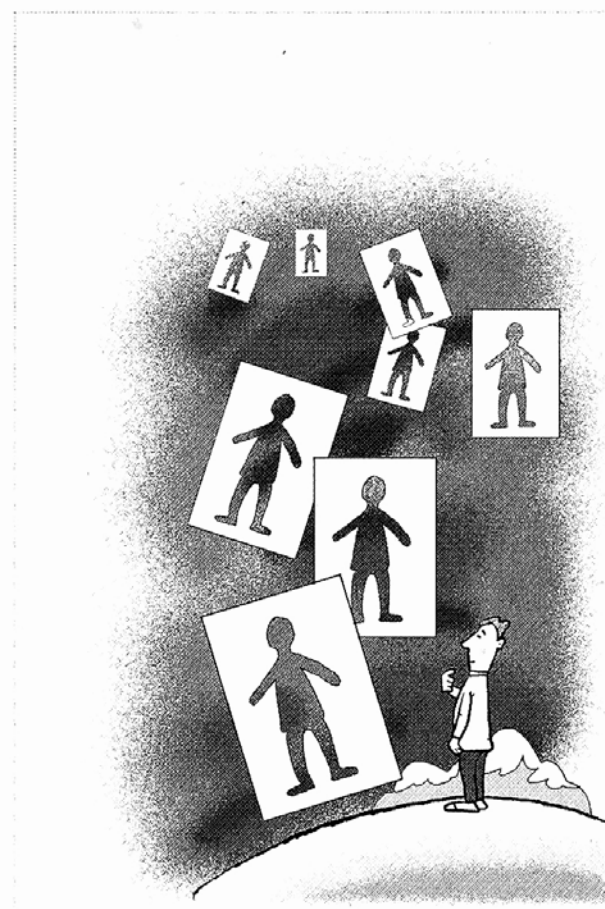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돌을 갖다 놓는 과정을 점수라고 한다면, 탐이 완성 돼서 마지막 불오라지가 딱 울랄갈 때는 돈오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탐 쌓는 데는 돌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모두가.

우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시면, 맷돌에도 심봉이 있습니다. 심봉을 끼워야 아래 위 물질이 들어가서 갈리죠? 그래서 물질과 맷돌과 물과 모든 인연에 따라서 합세가 돼 가지고 돌아가서 물건을 갈러 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갈려 나오지만 그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고 맷돌만 돌아가는 거죠. 그러는 데도 물질이 다 갈려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심봉이라는 것은 힘을 가할 뿐이지 맷돌과 같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주인공은 힘만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서 돌아가는 거는 맷돌 돌아가듯 한다. 그래서 마음을 내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선 맷돌에 꼭 물 건 넣는 거와 같다. 물건을 넣어서 갈러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놓고, 또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심봉은 움직여 안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기의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진실히 발견하라. 본래 없는 게 아니다. 찾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거니까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

문 스님의 법문집을 읽어보면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 죽을 때의 변화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공부를 하여 단계적으로 죽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단계조차도 그냥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를 발견할 양으로 모든 걸 거둬다 놓고 들어가면서, 모든 걸 한 군데다 놓고 내가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속 어저지죠? 용도에 따라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한마음의 심봉으로 모든 게 돌아가니까 그 심봉을 따진다면 심봉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심봉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죠. 돌아가는 맷돌에 의해서 그냥 우뚝 섰으니까 어느 편에 선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까지 침투할 때까지 죽어야 한다. 그러면 걸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그 도리를 아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돌 아닌 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죽어서 돌 아니게 나누는 법. 법신?보신?응신으로서 내 아님이 없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스님이 돼지를 건지시려고 응신이 돼 가지고 돼지한테로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돌이 들까봐 걱정이 됐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서 들어가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지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돼지가 알면 저항력을 느껴서 못 받아들어요. 뱀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저 목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응신은 응신이 돼서 들어가야 응신이 제각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두 번 죽어서 전체가 돌 아니게 돌아감을 알고, 모두가 내 아님이 없이, 내 아픈 아님이 없이 나누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시 산다 하더라도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갈 때는 공각지가 익어서 록 건드리기만 해도 종이 떨어지는데 종이 익지를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를 못해서 익지를 않으면 공각지가 익지 않은 거와 같아서 죽을 때도 그냥 병고에 휘달리고, 콩까지 속껍데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깨닫는 것은 수월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동안을 수박을 놓고서 '이게 뭐꼬?' 하고 아무리 굴러보고 의정을 내도 수박은 수박인데 맛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죽고 사는 거를 버린 채 그냥 깨뜨려서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일 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아니면 우리 식구가 전체 죽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이 도리를 발견하면 돌 위에 세워놔도 삽니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은 어떡하든지 먹고 입히고, 어떡하든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끌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부터 믿고 나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내 몸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맡겨 놓아서지 거기에서만이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만이 물리를 터지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를 친구니까 믿습니다. 수 없는 과거의 억급 광년을 거처하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진화를 하고 이날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예요. 장본인부터 알아야 모든 바깥의 일들을 전부 알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들으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문 이 바쁜 세상에 생활인으로서 생활의 선법을 어떻게 해 나가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들의 몸통이 자체가 꽃 한 송이 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꽃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잎이 한 송이에 많이 붙어있죠? 한 몸통이에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귀합해서, 즉 말하자면 주인공 자체다' 이렇게 자기 뿌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큰 일이 벌어졌든 작은 일이 벌어졌든,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은 믿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바로 모든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잘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못되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모든 것은 네가 형성시키고 네가 이끌어 가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맡겨 놓되 진짜로 믿는다면 우왕좌왕 하지 않습니다. 안달박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겨 놓고는 또 못 믿으니까, '아이고, 이것이 정말 되려나' 이러거든요? 그거는 건네 주었던 결재 서류를 도로 뺐는 거와 같어요. '이 서류를 다 좀 해결해라.' 해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안목을 밝히고 싶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4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